

노동정책연구
2019. 제19권 제3호 pp.61~92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어떤 대중음악가들이 지속적 예술활동을 전망하는가? :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사회자본의 효과*

양종민**
김서경***
권현지****

이 연구는 2017년에 한국노동연구원 지원으로 실시된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술인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예술활동 경력을 전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한 고용과 불규칙한 작업기회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경험과 더불어, 인적자본 요소라 할 예술적 테크닉 관련 잠재성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예술시장에 광범하게 퍼져 있는,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조직자원을 결여한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영향력 연결망의 크기가 향후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초 소득보장에 국한된 기존 예술인복지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예술노동자들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기초 소득보장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예술적 숙련을 지원하는 한편, 조직자원을 결여한 진입 및 경력형성기 프리랜서 음악가들이 예술노동시장의 주요 관계망에 보다 평등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존 정책도구의 확장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대중예술 노동자,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 예술인 복지정책, 인적자본, 사회자본

논문접수일: 2019년 7월 30일, 심사의뢰일: 2019년 8월 9일, 심사완료일: 2019년 9월 6일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NRF-2017S1A3A2066155). 아울러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2017)이라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된 온라인 서버이름 토대로 한 것이다.

** (제1 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jmyang1707@gmail.com)

*** (공동저자) 미국 코넬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sk92love@naver.com)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hkwon248@snu.ac.kr)

I. 서론

지난 10여 년간 대중음악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전문음악인을 꿈꾸는 청년도 크게 증가했다. 2012년 사이부터 2018년 방탄소년단에 이르기까지 예상치 못했던 케이팝 뮤지션의 폭발적 인기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이 상징하는 세계화와 디지털화는 이 시장의 확장적 고도화를 선도해 왔다.

그런데 세계적 스타 뮤지션의 배출과 매출액 증가, 글로벌 통합이 보여주는 괄목할 만한 산업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뮤지션 노동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적 성공을 이룬 대중음악산업은 예술활동에 배태된 필연적인 불확실성의 위험을 예술노동자에 크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권혜원, 201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중음악 예술인 중 약 50%가 겸업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절대다수인 약 94%가 낮은 소득 때문에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뿐만 아니라 80~90%에 달하는 전업예술인과 겸업예술인은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조직이나 사회의 보호 시스템 밖에서 독립계약노동자(일명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대다수 예술인이 처한 직업적, 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이 음악활동을 통한 경력을 전망하고 실행하는 데 주요 장애로 작동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예술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급격히 커진 대중예술노동시장에 비해 지원 규모와 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특화된 방식으로 예술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생존을 위한 예술가 개인의 자구적 모색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대중음악노동시장에 팽배한 프리랜서 계약은 예술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존 고용관계에 기반을 둔 복지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창의산업분야에서 포스트 포드주의체제가 전면으로 내세

우는 ‘유연성(flexibility)’이 작업조직 방식의 핵심으로 인식되면서 일기반(work based) 계약관계가 표준 고용관계를 대체하고 있다. 대다수 프리랜서들의 고민은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가’, ‘어떤 경력을 쌓아나갈 것인가’ 이전에 ‘당장 일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집중된다(Louden, 2013). 직업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경우 창작 외 경제활동을 주업으로 삼고 사실상 직업음악인의 경로를 이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최보연·안채린, 2017). 다시 말해, 창의노동에서도 지속가능성 인식과 직업이탈 의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따라서 예술인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개인의 예술적 성취는 물론 산업의 안정성과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연구는 예술노동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이 이들의 경제적 생계 보전에 목적을 둔 「예술인 복지법」의 기술과 평가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극복하려는 한 시도다. 즉 기초생계 보전에 초점을 둔 소극적 복지에 더해, 지속가능성 전망과 관련된 예술노동자 개개인의 자원동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문제의식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향후 정부의 노동시장/복지정책이 정책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는 예술노동시장에 직면한 전문예술노동자들이 어떤 역량과 전략을 지닐 경우 자신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우선적 목표는 지속가능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들의 가용자원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이 과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특히 현재 예술 노동시장에서 보편적 계약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연결망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하는데 여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예술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한편, 예술인 보호를 위한 핵심제도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살펴본다. 현 제도 및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어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예술인들의 가용자원으로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에 기

반해 해당자원의 동원 역량과 개인의 지속가능 전망에 대한 맥락적 가설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변수와 분석방법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주요 연구 가설

1.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

예술인에게 ‘노동’과 ‘창작’은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창작은 노동의 일부지만, 미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노동이다(이동연, 2018: 16). 예술인에게 노동은 예술활동 과정에서의 물리적 혹은 육체적 투입이 의미와 상징을 생산하는 고도의 정신적 투입과 결합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술노동은 창조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Ibid, 17). 이와 관련해 ‘노동’의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부각하는 창의노동(creative labor) 담론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Hesmondhalgh & Baker(2011)는 창의산업을 세계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는 상품을 생성하고 유통시키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창의노동은 창의적 재능과 혁신적 역량 발휘를 주요 업무로 삼는 창의산업 내 노동과정, 즉 ‘상징상품(symbolic product)’이라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규정된다. 창의노동자는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활용하여 직접 소비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징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참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은 예술노동시장의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도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¹⁾

1) 기존의 연구들은 창의산업 일반에 걸친 불안정성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고유한 불안정성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Banks & Hesmondhalgh, 2009; Gill & Prat, 2008; Umney & Kretsos, 2014). 여기서 의미하는 불안정성의 의미는 예술

첫째, 창의적 생산과정에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다(최보연·안채린, 2017). 창작을 위한 핵심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를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창의적 생산과정 자체를 예술가가 미리 계획하거나 통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창의적인 생산과정 자체는 모호성, 불확실성, 비예측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의 특성 때문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노동시간 개념을 예술활동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가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은 창의성과 독창성, 차별화를 통해 평가받고, 사회적·경제적인 가치를 부여받는다(Menger, 2006). 그러나 예술가들은 예술작품과 자신의 예술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 경제적인 보상이 유예되는 상황을 견뎌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본생계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최보연·안채린, 2017). 더욱이 예술작품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예술 소비자들의 취향과 그 변화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둘째, 창의 활동이 산업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기업화되고 있지만 창의산업 영역에서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고용 및 작업형태는 드물다. 대개의 예술가들은 정규 혹은 전속 고용계약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커리어를 통해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Menger(2006)가 예술계 및 창의관련 산업이 다양한 재능과 숙련된 기술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 팀 구성을 통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영화, 오페라, 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은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고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체된다.

적 목표와 경제적 목표 간의 긴장관계, 비공식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구조, 노동시장으로의 과다공급 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을 일반적인 창의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정성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있다.

- 2) 하지만 예술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다른 시각도 있다. Oakley (2009)는 예술활동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예술작업의 비일상적(non-routine)인 측면은 예술적인 혁신을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예술가들은 다음 작품(영화, 음악, 도서, 공연 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으므로 틀에 박혀 있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구속 없이 창의성을 표현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시각에서 예술활동의 불확실성을 취약성(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가 결합된 ‘프리카리아트(precariat)’ 논의와 결부하여(Gill & Prat, 2008)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지위상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대중음악 영역의 앨범 제작 역시 대개 단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예술노동자들은 계약에 따라 취업과 실업상태를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의노동자들은 자신의 창의적 역량을 단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이어가는 ‘경계 없는 커리어(boundary-less career)’를 스스로 구축해 가야 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을 만들어가는 개별 예술가들은 단속적인 일거리를 계속 붙여나가야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기 예술적 숙련은 물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Gill, 2002).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창의노동자들은 창작활동에 전념하기보다는 생계유지와 경제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다음 프로젝트를 탐색해야 하며 일부는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예술과 관련이 없는 직업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Hesmondhalgh & Baker, 2010; Gill, 2002). 불안정한 작업기회와 생계유지의 압박으로 인해 예술활동중단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예술가 경력을 계속 추구하더라도 향후 예술가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불안함을 안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2. 예술인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과 비판

앞서 지적했듯이 예술 활동은 직업으로서의 시장적 안정성이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노동법상 ‘근로자’ 지위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른바 4대 보험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만으로 최소한의 경제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건이 이어지고 이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2011년 11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³⁾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은 한국예술인복지제

3) 예술인들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예술계의 불안정한 직업안정성, 불공정한 경제적 보상체계 등 현실적 문제들이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배고픈 예술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예술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단이 전담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구현’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 17). 예술인복지 지원정책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창작역량강화는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술활동 수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16). 대표적으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는 단속적이고 불규칙한 예술활동 계약기간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부족하거나 없어지는 기간 동안 창작활동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기간 1인당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4) 둘째, 직업역량 강화는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및 기관 등과 사회적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들이 새로운 직업역량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서브-잡(sub-job, 부업) 개발’을 목표로 한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 38). 셋째, 불공정 관행 개선 영역은 예술활동 중에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직업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32). 대표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스톱 지원(상담, 신고, 피해구제 등)을 제공하는 예술인 신문고 사업과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사업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은 예술인의 사회보장이라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기간 동안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이러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제기했다. 첫째, 법의 출발점이 예술노동이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는 정책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노동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염신규, 2015; 이동연, 2013, 2018). 예술노동의 특성상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정규노동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예술인 복지수혜 자격에 여타의 임금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시간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시 말해, ‘예술’을 기존 ‘노동’의 프레임에 단순하게 대입하는

4)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경우 만 70세 이상의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을 위해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규모 역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1인당 총 300만 원이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8: 2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동연, 2013: 264). 둘째, 예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가치지향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최보연·안채린, 20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사업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은 예술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한 번 이상의 수혜를 허용하지 않는 일회적 소득 보전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원만료 기간에 맞추어 창작결과물을 도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창작과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를지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생산과정 자체를 예술가가 미리 계획하거나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궁극적인 가치지향이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인지 한시적인 생계지원인지 가늠하기 어렵다(Ibid, 88).

「예술인 복지법」은 단순히 예술인의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음악 산업에 널리 퍼진 프리랜서 계약 전문 예술인들이 경력 초기에 쉽게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에 함의를 얻고자 한다.

3.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술인들의 대응 : 연구가설

기존 보편적 고용관계의 경계로부터 한발 바깥에 위치하는 대다수 예술인은 불확실한 예술노동시장에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가용한 자원의 양을 늘림으로써만 더 불확실하고 더 경쟁적인 환경에서 향후 예술활동의 안정성에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술인 스스로 상품화 정도(commodification)를 강화함으로써 일할 기회와 그 지속성을 확보하는 자구 노력이 이 시장에서 일반적인 생존방식이다(Ursell, 2000). 자본을 시장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Lin, 2001: 3), 예술가는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투자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개인의 교육과 기술훈련 등에 투자해 인적

자본을 증식하거나 똑같은 시간과 자원을 사회적 관계에 투자해 사회자본을 증식할 수 있다(Ibid, 19). 안정적인 고용기회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가는 예술노동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재교육과 노하우를 스스로 축적하며(박진우, 2011), 인맥을 활용하여 예술노동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작업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은 개인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육, 기술훈련, 직업경험(experience) 등을 통해 측정된다(Kilkenny et al., 1999). Rosen(1981)은 인적자본을 개인의 내재적인 특징과 분리할 수 없으며, 투자를 통해 인적자본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경제학에서 통용되고 있는 Mincer(1958)의 인적자본모델에 따르면(Rosen, 1992), 향후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교육연수, 직업경험과 더불어 인적자본의 초기조건(혹은 상수항)으로서 선천적인(innate) 능력과 가족배경으로 구성된다. 선천적인 능력은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투자 비용을 줄여준다. 즉 내재적인 능력이 뛰어날수록 동일한 조건의 투자에 대해 달성할 수 있는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Towse, 2006).

예술영역에 있어서도 인적자본 축적의 초기조건이 중요하다. 내재적인 자산으로서 창의성은 특별한 기술을 좀 더 쉽게 습득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예술적 생산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로 소수의 뛰어난 연주자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연주를 들 수 있다. Rosen(1981)에 따르면 예술영역은 소수의 유명 예술가들에 의해 부(wealth)가 독점되는 양상이 강한데, 이는 기술발전 등으로 예술시장의 규모가 커진 동시에 소비자들이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를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시각 예술가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Throsby(2006)는 창의력은 창의적인 예술활동 결과물(소설, 시, 그림, 조각, 연기 작곡 등)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자로서 예술가는 다른 생산자들과 달리 창의성을 생산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창의성의 중요성은 비단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영역에 적용된다

고 주장했다(Ibid, 1). 창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창의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적 생산성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창의성은 측정이 매우 어려운 개념이므로 우리는 예술인 자신의 창의성 인식에 근거해, 예술인 스스로가 창의성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1 : 예술인 스스로가 창의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것이다.

예술인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인적자본에 투자한다고 할 때 앞에서 언급한 초기조건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기술숙련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예술창작물을 소비자나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일정 기간 이상의 숙련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최보연·안채린, 2017). 앞서 언급한 Throsby(2006)의 연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상업적 지향이 강한 예술활동에 예술적 숙련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숙련수준과 상업작품의 산출량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예술노동시장의 지배적 계약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프리랜서 계약에 연루된 예술가들의 경우 예술적 숙련도의 확보, 유지, 개발하는 것은 일할 기회의 단속성을 극복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공동의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구축되는 평판의 근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예술적 기술적 숙련도이며, 더 많은 일할 기회를 통해 확보되는 직업적 숙련은 다시 안정적 예술활동에 기여한다. 따라서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예술적 숙련기술수준에 대한 전망과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 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2 :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예술적 숙련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다고 전망할 것이다.

나.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예술노동시장에 크게 확산된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예술적, 직업적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숙련 확보에 프리랜서 고용계약에 배태된 일할 기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일은 더욱 긴급하며, 이를 매개하는 주요 고리 중 하나가 사회적 연결망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앞에서 언급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에 대해 투자하게 된다. 사회자본은 시장에서의 이익을 기대하고 사회적 관계에 투자되는 것을 의미한다(Lin, 2001: 19). 인간의 행위를 일종의 자원(resource)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은 통제가능하다는 경제학적인 관점과 달리 사회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 활용되는 자원이 바로 사회자본이다(Dakhli & Clercq, 2004).⁵⁾ 사회자본은 개인으로 하여금 아이디어, 정보, 금전, 서비스와 같은 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zreter & Woolcock, 2004).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자본과 그 효과의 상이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자본의 유형은(박찬웅, 2000: 92), 크게 관계에 의존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예컨대, 정보, 서비스, 통제, 결속)을 통해 구분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통해 구분된다. Szreter & Woolcock(2004)은 후자인 사회적 관계 유형을 통한 구분을 다시 결속적(bonding) 사회자본, 연결적(bridging) 사회자본, 연계적(linking)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질적인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연결적 사회자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른(연령, 인종, 계급 등)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존중과 호혜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연계적 사회자본은 개인으로 하여금 존경이나 존중과 같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권력에 대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적 관계의 유형으로 구분한 세 가지 사회자본 중 결속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연구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Antcliff et al.(2007)는 사회자본을 열린 연결망과 닫힌 연결망으로 구분했다. 열린 연결망은 연결적 사회자본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이질적이므로 포용적인(inclusive) 관계가 특징이다. 이러한 연결망은 정보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닫힌 연결망은 결속적 사회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연결망 내의

5)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자본은 개인의 속성이고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박찬웅, 2000: 83).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유대감이 높은 배타적인(exclusive) 관계가 특징적이다. 따라서 조직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하다.

프로젝트 기반 협업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적 신뢰관계가 중요한 예술인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힌 연결망은 상호협력, 신뢰, 호혜관계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단힌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하고 호혜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협업기회 자체가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협업이 가능한 네트워크(단힌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협업 가능성이 커지므로 협업네트워크를 많이 확보한 예술노동자는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할 개연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한 예술가보다는 속한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협업네트워크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2-1 : 협업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협업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협업 가능성이 늘어나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가설 2-2 :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예술가보다는 속해 있는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경우, 협업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한편 열린 연결망의 경우 단힌 연결망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작품활동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그라노베테터(Granovetter, 1973)가 제시한 ‘약한 연결의 강함(strength of weak ties)’이란 개념과 관련된다. 그라노베테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보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지내는 약한 연결망으로부터 직업기회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강한 연결 혹은 가까운 관계는 약한 연결 혹은 아는 사이나 업무 관계에 비해 다양한 정보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강한 연결의 경우 평소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경계가 연결망 내부의 구성원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약한 연결망은 연결망 내부의 개인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영역에 존재하

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폭넓은 정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예술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예술가나 관련 직업군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새로운 프로젝트나 작품활동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전체 예술가 네트워크에서 Burt(1992)가 고안한 ‘구조혈(structural hole)’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향력이 있는 예술가들은 정보의 흐름을 연결하는 위치에서 닫힌 연결망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린 연결망은 모든 예술가에게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과 같이 안정적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작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취약한(precairous) 노동조건에서 네트워크는 위험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영국의 텔레비전 산업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Lee(2011)에 따르면 연결망은 개인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찾는 수단이 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재능 있는 예술인들을 프로젝트에 참여시킬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 노동계약은 개인 친분에 기반을 둔 인맥이나 개개인의 평판 혹은 비공식적인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알수록 작업기회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박진우, 2011, 임영호 외, 2004).⁶⁾ 따라서 열린 연결망의 이점을 생각하면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알수록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예술활동 관련 자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한 예술가보다는 속한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알수록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것이다

6) 박진우(2011)는 인맥 네트워크의 폐쇄성에 대해 주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에서 인맥 네트워크의 폐쇄성은 학력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되며, 성별 및 출신 지역도 부분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설 3-2 :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예술가보다는 속해 있는 조직이 없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가들이 예술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을 더 많이 알수록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할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중음악산업의 경우 영화나 미디어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노동과정(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상당한 협업을 요구한다. 대체로 단독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작곡가들조차도 협업을 기반으로 곡을 생산한다는 기존 연구(McAndrew and Everett, 2015)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연구(박양우 · 이유리, 2013)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대중음악 예술인들에게 사회자본의 활용은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17년에 실시된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이다. 대중음악과 관련된 서울지역 예술인 4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온라인 서베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이라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권현지 · 양종민 · 김서경, 2017), 서베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뮤지션의 경계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경계 안팎을 오가는 이동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뮤지션의 모집단을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대부분의 직업 뮤지션이 등록하고 있는 대표적 협회들과 혹 여기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인디신의 뮤지션을 포괄하기 위해 뮤지션 자조조직을 접촉했고 이 중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가 첨부된 이메일 발송에 동의한 협회들의 도움으로 서베이를 했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 말

까지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창작활동 경험, 소속 집단, 예술활동 관련 숙련과정, 기술변동으로 인한 예술산업의 변화에 대한 인식, 창작활동 및 창작활동 외 경제활동, 삶의 만족도 및 안정성 등이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나 한국콘텐츠진흥원(2015)에서 실시한 「대중음악 프리랜스 뮤지션 실태조사」이 반영하고 있지 못한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대한 인식을 주요 문항으로 포함했다. 특히 이 조사는 예술인들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대중음악가들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 변수

우선 종속변수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느끼는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이다. 구체적인 문항은 “귀하는 생애기간 동안 안정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며 ‘① 매우 그렇다’부터 ‘⑤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점수가 높게 측정되도록 역코딩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개인적인 수준의 투자와 관련하여 예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창의성 수준, 예술인 스스로 판단하는 향후 예술적 테크닉의 달성 정도 등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했다. 창의성 수준은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필요한 창의성 수준을 5점으로 할 때 귀하의 예술활동을 위한 창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① 낮음’부터 ‘⑩ 높음’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Throsby(2006) 역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예술인 스스로 그 수준을 판단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는 창의성이 협조적인(supportive) 가정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와 관련된 4개 문항을 0과 1로 코딩하여 4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창의성을 측정하였다.⁷⁾ 그는 창의성을 예술인 스스로 측정하게 하는 방식이 자칫 조잡할 수 있지

7) 4가지 문항은 “재능(talent)은 예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재능은 예술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가족배경은 예술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가족배경은 예술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로 구성되어 있다(Throsby,

만 창의성이 뛰어난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예술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용가능한 측정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도 예술인 스스로의 평가로 측정되는 창의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예술인 스스로 판단하는 향후 예술적 테크닉의 달성 정도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필요한 테크닉 수준을 5점을 보통으로 할 때 향후 5년 동안 귀하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테크닉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으로 측정하였으며 ‘① 낮음’부터 ‘⑩ 높음’까지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⁸⁾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서는 협업 연결망과 영향력 있는 예술가와 관계 맺음 연결망의 크기를 측정했다. 우선 협업 연결망은 “귀하는 언제든지 협업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이 몇 명입니까?”라는 주관식 문항으로 측정했으며 영향력 있는 예술가와 관계 맺음 연결망(이후 영향력 연결망)은 “귀하는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대략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주관식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예술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경제적 안정성의 수준에 따라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소득을 측정했으며,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과 예술영역 이외의 활동을 통한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소득 값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의 수준에 따라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작업기회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 1년을 생각해봤을 때 음악활동이 3개월 이상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① 예’와 ‘② 아니오’로 답변하게 하였다. 대중예술 분야의 노동환경이 정규직과 같이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동형태보다는 단기 프로젝트

2006: 6).

- 8) 창의성 수준, 향후 예술적 테크닉 달성 정도를 10점 척도로 측정한 이유는 우선 창의성과 예술적 테크닉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문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성에 대한 예술가의 개인적인 판단을 근거로 창의성의 수준과 예술적 테크닉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선택지 스펙트럼을 최대한 폭넓게 제공하고 응답의 분산(variation)을 확보하기 위해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비정규적인 노동형태로 구조화된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귀하가 현재 소속된 조직이나 팀이 있다면 그 조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피설문자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은 ‘① 없다’, ‘② 기획사/대형제작사’, ‘③ 중소제작사’, ‘④ 독립(인디) 제작사’, ‘⑤ 프로젝트 팀’, ‘⑥ 기타(협동조합 등)’이며, 분석에서는 ② 기획사/대형제작사와 ‘③ 중소제작사’를 하나의 변수로 결합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제작사’에 속해 있는 예술인이라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었다.⁹⁾

한편 성별, 연령, 정규교육 이수여부, 총소득, 주요 활동영역(① 작곡 ② 보컬 ③ 악기연주 ④ 프로듀싱 ⑤ 기타), 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의 변수를 통제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순서형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이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순서가 있는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순서형 회귀분석이 적절하다.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경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예술인 복지법」 수혜여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개인수준의 투자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독립변수들을 추가하면서 주요 변수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 1에서는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이전에 상황적인 맥락으로서 예술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징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불확실한 예술노동

9) 대형제작사와 중소제작사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과 전문적 음악 역량을 바탕으로 뮤지션의 예술적 역량을 육성하고 음반을 제작하며, 전문적인 마케팅 활동과 음반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권혜원, 2017).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대형제작사와 중소제작사를 구분했다. 반면에 독립(인디)제작사는 음반 제작과정부터, 유통, 홍보를 외부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제작, 유통, 홍보를 진행하는 음반사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팀은 작업기회가 있을 때만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시장에 대응하여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모형 2에서는 인적자본인 창의성,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형 3에서는 사회자본인 협업 연결망과 영향력 연결망의 효과를 측정한다. 모형 4부터 모형 8까지는 현재 예술노동시장의 보편적인 계약형태라고 할 수 있는 프리랜서 계약 예술인들의 경우 소득수준, 인적자본, 사회자본 등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기초통계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인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평균은 2.59로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주요 활동영역은 작곡과 악기연주가 각각 30% 비율이며 보컬이 23.7%, 프로듀싱이 14.1%이다. 예술 관련 정규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이며 최근 1년 중 예술활동 중단경험이 있는 비율은 39%다. 소속집단의 경우 음반 제작사에 속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5%이며 소속된 조직이 없는 경우가 40%, 독립(인디) 제작사가 24.6%, 프로젝트팀이 20.7%이다.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성 수준의 평균은 7.29이며 예술적 숙련 잠재성 평균 역시 8.18로 최대값이 10인 점을 고려해볼 때 본인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예술활동 중단여부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1〉 변수들의 기초통계

변수	표본수	평균 (비율)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	483	2.59	1.15	1.00	5.00
통제변수					
총소득(로그)	483	15.66	2.78	0.00	19.34
예술활동 중단여부(있음=1)	483	0.39	0.49	0.00	1.00
소속집단 ^{b)}	455			0.00	3.00
음반 제작사 ^{c)}	66	14.51			
독립(인디) 제작사	112	24.62			
프로젝트팀	94	20.66			
없음	183	40.22			
부모의 경제적 지위	483	4.86	1.88	1.00	9.00
성별(여성=1)	483	0.32	0.47	0.00	1.00
주요 활동영역 ^{a)}	465			1.00	4.00
작곡	146	31.4			
보컬	110	23.66			
악기연주	143	30.75			
프로듀싱	66	14.19			
정규교육 이수여부(아니오=1)	483	0.35	0.48	0.00	1.00
연령	483			0.00	2.00
20대	198	40.99			
30대	203	42.03			
40대 이상	82	16.98			
독립변수					
창의성(10점 척도)	483	7.29	1.93	1.00	10.00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10점 척도)	483	8.18	1.82	1.00	10.00
협업 연결망(로그)	472	1.76	0.79	0.00	4.39
영향력 연결망(로그)	468	1.47	1.02	0.00	3.93

주: a) '기타'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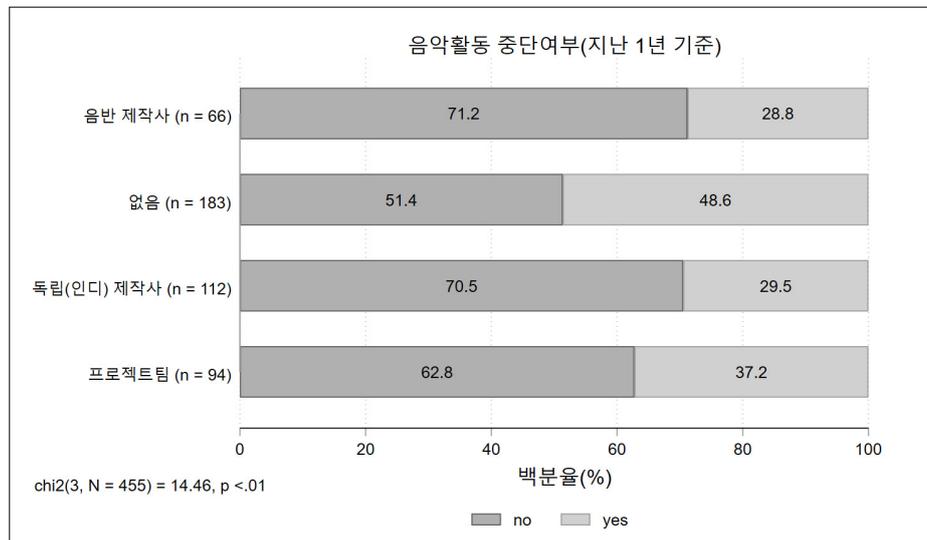
b) '기타(협동조합 등)'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c) 음반 제작사는 기획사/대형제작사와 중소제작사를 합한 값.

[그림 1]과 같이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음반 제작사나 프로젝트팀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인디) 제작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음악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각각 28.8%와

29.5%에 불과한 반면, 프로젝트 팀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비율이 37.2%이다. 또 속해 있는 조직이 없는 경우 음악활동을 중단한 비율이 48.6%에 육박한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X^2=14.46, p<.01$),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1] 소속집단별 음악활동 중단여부 비율



2.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참고로 통제변수의 회귀효과는 <부표 1>을 참조하면 된다. 우선 통제변수만의 회귀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 정규교육 이수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예술인들의 주요 활동영역별로 보면 악기연주자 집단의 승산이 $0.59(=exp(-0.52))$ 이다. 이는 작곡가 집단에 비해서 악기연주자 집단이 안정적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41% 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집단과 관련해서는 20대의 승산이 $1.74(=exp(0.55))$ 로 40대 이상 집단에 비해서 20대 집단이 안정적인 활동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표 2〉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총소득(로그)	-0.00 (0.03)	-0.01 (0.03)	-0.03 (0.03)
예술활동 중단여부(있음=1)	-0.92*** (0.19)	-0.87*** (0.19)	-0.83*** (0.19)
소속집단(기준집단=음반제작사) 없음	-0.18 (0.27)	-0.17 (0.28)	-0.14 (0.28)
독립(인디) 제작사	-0.31 (0.29)	-0.34 (0.30)	-0.38 (0.31)
프로젝트팀	0.16 (0.30)	0.24 (0.31)	0.24 (0.31)
창의성		0.08 (0.06)	0.07 (0.06)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		0.21*** (0.06)	0.22*** (0.06)
협업 연결망(로그)			0.01 (0.15)
영향력 연결망(로그)			0.07 (0.10)
표본수	441	441	425
LR Chi2	52.97***	79.68***	79.60***
pseudo R2	0.040	0.060	0.063

주: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의 회귀효과는 <부표 1>을 참조.

약 74%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예술가들이 예술노동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창의성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Towse(2006)의 주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활동에 대한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7% 정도 높다(exp(0.07)). 흥미로운 점은 인적자본의 초기조건으로서 가족배경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의 전망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후천적인 기술의 습득이나 창의성을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점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보다 예술인 스스로가 창의성과 테크닉 습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모형 1부터 회귀분석 결과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먼저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총소득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반면 예술활동 중단여부의 경우 예술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 집단의 승산이 $0.40(=exp(-0.92))$ 으로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작업기회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 예술인이 그렇지 않은 예술인에 비해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60% 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술활동 중단을 경험한 적이 있는 예술가의 경우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편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결정계수(Pseudo R²)는 0.040으로 독립변수가 없는 귀무모형(null model)에 비해 약 4% 정도 향상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수준의 투자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를 모형 2와 모형 3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창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가설 1-1). 반면 후천적인 기술습득과 관련된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승산은 $1.24(=exp(0.21))$ 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이 한 단위 상승할 때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이 한 단위 높아질 승산이 약 24%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가설 1-2). 그리고 이 변수는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과 집단별 상호작용 효과를 측정 한 모형 7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예술활동 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었다. 인적자본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적자본의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창의성보다 후천적으로 학습과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예술적 테크닉이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결과는 예술인들의 기술적 숙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사회자본과 관련, 협업 연결망(가설 2-1)과 영

향력 연결망(가설 3-1)은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모형 3).

<표 3>에서는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형태에 따라 소득수준,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모형 4에서는 총소득과 소속집단의 유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음반 제작사에 소속된 예술노동자들에 비해 소속 집단이 없거나 프로젝트팀에 속해 있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시 말해,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예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따라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의 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속해 있는 조직의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향후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표 3>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상호작용효과)

	모형4 ^{a)}	모형5 ^{b)}	모형6 ^{c)}	모형7 ^{d)}	모형8 ^{e)}
소속집단 (기준집단=음반 제작사)					
없음	-0.22* (0.10)	0.03 (0.15)	0.05 (0.17)	0.00 (0.45)	0.44 (0.31)
독립(인디) 제작사	-0.15 (0.12)	-0.08 (0.17)	0.32 (0.19)	0.38 (0.48)	0.67* (0.32)
프로젝트팀	-0.23* (0.11)	0.18 (0.16)	0.12 (0.18)	0.28 (0.49)	0.77* (0.35)
표본수	425	425	425	425	425
LR Chi2	86.13***	82.95***	84.46***	81.43***	85.72***
pseudo R2	0.068	0.066	0.067	0.065	0.068

주: a) 소속집단x총소득(로그).

b) 소속집단x창의성.

c) 소속집단x예술적 숙련 잠재성.

d) 소속집단x협업 연결망(로그).

e) 소속집단x영향력 연결망(로그).

* p<0.05, ** p<0.01, *** p<0.001.

통제변수의 회귀효과와 나머지 독립변수의 회귀효과는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모형 5와 모형 6에서는 인적자본인 창의성과 예술적 숙련 잠재성이 미치는 효과가 소속집단의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는데, 분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설 2-2와 3-2와 관련하여 사회자본과 조직의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했다. 모형 7과 8에서 알 수 있듯이 협업 연결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지 않지만, 영향력 연결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드러냈다. 즉 영향력 연결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음반 제작사 소속 예술인에 비해 독립(인디)제작사와 프로젝트팀에 속한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에 대한 전망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기획사 혹은 대형제작사나 중소제작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에 속해 있는 대중음악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적인 조직에 속해 있는 대중음악 예술인들이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통해 작업 혹은 고용의 기회 확대를 추구하고 그를 통해 예술활동의 장기 전망을 확보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에 속해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조직에 속해 있는 예술인에 비해 안정적인 작업기회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약한 연결망(weak ties)’의 특성을 지니는 영향력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인은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혈(structural hole)’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Burt, 1992) 프리랜서 예술인의 입장에서는 향후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2017년 「디지털 시대의 서울지역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으로 대표되는 개인수준의 투자와 예술활동의 경력전망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또 그 결과로부터 현행 예술인 복지법이 집약하고 있는 소극적, 일시적 소득보전 중심의 예술인 보호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는 예술활동 경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론적 요인에 주목하고, 설문조사에 기반해 예술인들이 향후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예술경력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이론적 요인을 여하히 인식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개인의 생존전략이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드문 연구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잠정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현재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에게도 불안정한 고용과 작업기회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경험은 향후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단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소득보장의 일차적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일시적, 임시방편적 소득보전형 접근은 예술인, 나아가 대중예술의 지속가능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인들에게 장기적 전망을 줄 수 있는 일차적 요인은 그들의 높은 예술적·기술적 숙련 수준이다. 따라서 예술인들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최소한의 소득보전 정책과 결부된 직업 특화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확충과 일경험의 확대에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과 유통에 긴밀히 통합되고 있는 대중예술의 특성상 예술적 숙련도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 교육과 훈련 요구, 중단없는 예술활동에 대한 요구가 향후에도 꾸준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법의 문제 의식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일경험의 확충과 지속은 이 시장에 크게 확대된 프리랜서에게 특히 중요하다. 불안정한 직업지위에 처한, 특히 단기적 프로젝트 기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노동시장의 핵심 네트워크에 좀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영향력 연결망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책당국이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협업기회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숙련을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높은 수준의 숙련과 결합된 협업기회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 예술인은 예술

계 내 평판에 기반한 포용적 노동시장(inclusive labor markets)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지닌 한계와 관련 후속연구의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¹⁰⁾ 본 연구는 플랫폼, 프로젝트 기반 노동이 심화되고 있는 예술 영역 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수량적 기법을 사용해 보여준 드문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자본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실제 인식하는 사회자본의 효과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협업가능 동료의 규모와 예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인의 수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단순히 규모뿐 아니라 참석정도, 집단 구성원의 혼합성/단일성과 같은 집단의 특성, 규범화, 신뢰와 같은 다양한 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다(Narayan and Cassidy, 2001). 후속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 이런 조사와 분석은 대중음악분야, 서울지역을 넘어 유사한 대중예술분야 전반, 전국으로 확대가능하다.

또한 영국 독립TV제작사 프리랜서 예술인 대상의 인터뷰(Lee, 2011)나 독일 TV 제작회사 회사 사례에 대한 질적 비교분석(Sydow and Manning, 2004)에서 보듯, 실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그들의 예술활동 경력전망에 미치는 사회자본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어떤 지속가능 전략을 구사하는지에 대해 풍부하고 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질적(qualitative) 사례연구의 보충 역시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남는다.

10) 사회자본의 측정과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이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예술활동 전망과 성과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차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낙관적 전망이 반드시 장기적인 예술노동시장 체류, 또는 예술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비관적 전망이 반드시 예술노동시장 이탈이나 예술활동 결과물의 질적 저하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권현지·양종민·김서경(2017). 「디지털 시대 서울지역 젊은 대중예술 노동자의 노동 및 고용여건 변화조사」. 권현지 외.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 권혜원(2017). 「산업별 사례연구: 음악산업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권현지 외. 『21세기 디지털 기술변동과 고용관계: 이론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박양우·이유리(2013).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28: 257~285.
- 박진우(2011). 「유연성, 창의성, 불안정성」. 『언론과 사회』 19(4): 41~86.
- 박찬웅(2000).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79~110.
- 염신규(2015). 『사업만 떠다니는 예술인 복지, 연극인의 죽음 그후 1년 - [문화 예술정책을 아십니까?] ‘노동’ 개념 없는 예술인 복지정책』, 미디어스 (2015년 2월 11일자).
- 이동연(2013). 「예술과 노동 사이」. 『시민과세계』 22: 262~274.
- _____(2018). 『예술@사회』, 학고재.
- 임영호·김은미·박소라(2004). 「한국 일간지 언론인의 커리어(career) 이동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3): 61~89.
- 최보연·안채린(2017). 「창의노동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술경영연구』 42: 65~102.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6). 『2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백서』.
- _____(2018). 『20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종합 안내』.
- 한국콘텐츠진흥원(2015). 「2014 대중음악산업 실태조사」.

- Antcliff, Valerie, Richard Saundry, and Mark Stuart(2007). "Networks and social capital in the UK television industry : The weakness of weak ties." *Human Relations* 60 (2) : 371~393.
- Banks, Mark, and David Hesmondhalgh(2009). "Looking for work in creative industries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5 (4) : 415~430.
- Burt, Ronald S.(1992). *Structural holes : The structure of social capital competi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Dakhli, Mourad, and Dirk De Clercq(2004).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innovation : a multi-country study."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6 (2) : 107~128.
- Gill, Rosalind(2002). "Cool, creative and egalitarian? Exploring gender in project-based new media work in Euro."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5 (1) : 70~89.
- Gill, Rosalind, and Andy Pratt(2008). "In the social factory? Immaterial labour, precariousness and cultural work." *Theory, culture & society* 25 (7-8) : 1~30.
- Granovetter, Mark S.(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6) : 1360~1380.
- Hesmondhalgh, D. and S. Baker(2011). *Creative labour :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Routledge.
- Kilkenny, Maureen, Laura Nalbarte, and Terry Besser(1999). "Reciprocated community support and small town-small business succes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1 (3) : 231~246.
- Lee, David(2011). "Networks, cultural capital and creative labour in the British independent television industry." *Media, Culture & Society* 33 (4) : 549~565.
- Lin, Nan(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den, Sharon(2013). *Living and sustaining a creative life*. Intellect Books.
- McAndrew, Siobhan, and Martin Everett(2015). "Music as collective invention :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composers." *Cultural Sociology* 9 (1) : 56~80.

- Menger, Pierre-Michel(2006). "Artistic labor markets : Contingent work, excess supply and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1 : 765~811.
- Mincer, Jacob(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4) : 281~302.
- Narayan, Deepa, and Michael F. Cassidy(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 (2) : 59~102.
- Oakley, Kate(2009). *Art Works': cultural labour markets*. Creative partnerships.
- Rosen, Sherwin(1981). "The economics of supersta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 (5) : 845~858.
- _____(1992). "Distinguished fellow : Mincering labor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 (2) : 157~170.
- Sydow, Jörg, and Stephan Manning(2004). "Projects, paths, and relationships : Binding processes in TV production." in SAM/IFSAM VIIth World Congress. pp.5~7.
- Szreter, Simon, and Michael Woolcock(2004). "Health by association? Social capital,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 (4) : 650~667.
- Throsby, David(2006). "An artistic production function :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Australian visual artis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0 (1) : 1~14.
- Towse, Ruth(2006). "Human capital and artists' labour market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1 : 865~894.
- Ursell, Gillian(2000). "Television production: issues of exploitation, commodification and subjectivity in UK television labour markets." *Media, Culture & Society* 22 (6) : 805-825.
- Umney, Charles, and Lefteris Kretsos(2014). "Creative labour and collective interaction: the working lives of young jazz musicians in Lond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8 (4) : 571~588.

<부표 1>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통제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모형 9
성별(여성=1)	-0.25 (0.19)	-0.20 (0.20)	-0.12 (0.20)	-0.19 (0.21)	-0.22 (0.21)	-0.21 (0.21)	-0.21 (0.21)	-0.19 (0.21)	-0.18 (0.21)
주요활동영역(기준집단=작곡)									
보컬	-0.14 (0.23)	-0.01 (0.24)	0.05 (0.24)	0.02 (0.25)	0.11 (0.25)	0.04 (0.25)	0.03 (0.25)	0.03 (0.25)	0.08 (0.25)
악기연주	-0.53* (0.22)	-0.71** (0.23)	-0.66** (0.24)	-0.69** (0.25)	-0.64* (0.25)	-0.69** (0.25)	-0.68** (0.25)	-0.69** (0.25)	-0.69** (0.25)
프로듀싱	0.30 (0.27)	0.14 (0.28)	0.25 (0.28)	0.30 (0.29)	0.32 (0.29)	0.32 (0.29)	0.36 (0.30)	0.31 (0.29)	0.29 (0.29)
정규교육 이수 여부(아니오=1)	0.03 (0.18)	0.02 (0.19)	0.15 (0.19)	0.14 (0.20)	0.18 (0.20)	0.12 (0.20)	0.11 (0.20)	0.15 (0.20)	0.13 (0.20)
부모의 경제적 지위	0.07** (0.02)	0.05* (0.02)	0.04 (0.03)	0.04 (0.03)	0.04 (0.03)	0.04 (0.03)	0.04 (0.03)	0.04 (0.03)	0.04 (0.03)
연령(기준집단=40대 이상)									
20대	0.58* (0.25)	0.62* (0.27)	0.71** (0.27)	0.75** (0.28)	0.80** (0.29)	0.76** (0.28)	0.77** (0.29)	0.73** (0.28)	0.72* (0.28)
30대	0.05 (0.25)	0.12 (0.26)	0.16 (0.27)	0.14 (0.27)	0.16 (0.28)	0.15 (0.27)	0.20 (0.28)	0.16 (0.28)	0.10 (0.28)
표본수	465	441	441	425	425	425	425	425	425
LR Chi2	30.12***	52.97***	79.68***	79.60***	86.13***	82.95***	84.46**	81.43***	85.72***
pseudo R2	0.022	0.040	0.060	0.063	0.068	0.066	0.067	0.065	0.068

주: * p<0.05, ** p<0.01, *** p<0.001.

<표 1>의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의 모형 1은 <부표 1>의 모형 2에 해당함. <부표 1>의 모형 1은 종속변수에 대한 통제변수의 회귀효과만을 나타냄.

〈부표 2〉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순서형 회귀분석 결과(상호작용 모델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모형 4	모형 5	모형 6	모형 7	모형 8
총소득(로그)	0.15 (0.08)	-0.03 (0.04)	-0.03 (0.03)	-0.03 (0.04)	-0.03 (0.04)
예술활동 중단 여부 (있음=1)	-0.85*** (0.19)	-0.85*** (0.19)	-0.83*** (0.19)	-0.83*** (0.19)	-0.81*** (0.19)
소속집단(기준집단=음반 제작사)					
없음	3.35* (1.54)	-0.34 (1.12)	-0.54 (1.41)	-0.16 (0.81)	-0.84 (0.55)
독립(인디) 제작사	1.99 (1.88)	0.20 (1.28)	-3.07 (1.59)	-1.06 (0.91)	-1.43* (0.58)
프로젝트팀	3.81* (1.71)	-1.10 (1.25)	-0.80 (1.54)	-0.26 (0.92)	-0.94 (0.62)
창의성	0.06 (0.06)	0.03 (0.13)	0.07 (0.06)	0.07 (0.06)	0.07 (0.06)
예술적 테크닉 잠재성	0.22*** (0.06)	0.23*** (0.06)	0.11 (0.15)	0.23*** (0.06)	0.23*** (0.06)
협업 연결망(로그)	0.04 (0.15)	0.02 (0.15)	0.01 (0.15)	-0.13 (0.42)	0.03 (0.15)
영향력 연결망(로그)	0.07 (0.10)	0.06 (0.10)	0.06 (0.10)	0.06 (0.10)	-0.47 (0.28)
표본수	425	425	425	425	425
LR Chi2	86.13***	82.95***	84.46**	81.43***	85.72***
pseudo R2	0.068	0.066	0.067	0.065	0.068

주: * p<0.05, ** p<0.01, *** p<0.001.

Which Popular Music Artist Anticipate Continuous Art Activities?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Stable Artistic Prospects

Yang Jongmin · Kim Seokyoung · Kwon Hyunji

This study examines whether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forecasting stable artistic activities. Especially, we have also empirically verify whether an artistic network have a meaningful effect in forecasting stable artistic activities for freelance contract artist, which is a universal form of contract in the art labor market. Based on the 『Survey of Artists in Seoul in the Digital Age』 conducted in 2017,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experience of discontinuing artistic activities due to unstable employment status and the potential of artistic sk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forecasting stable artistic activities. Furthermore, for freelance contract artists, the size of the influential network that indicates the amount of relationship with influential people in artistic network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spects of stable artistic activities in the future. Therefore, welfare policies for artists need to consider not only securing stable income, but also helping artists gain easier access to the core networks of the art labor market.

Keywords : popular music artist, stable art activity prospect, welfare policy for artists, human capital, social capital